트럼프의 최후통첩 D-1, 중동 상황 주시하며 증시 소폭 상승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 hyseong@ls-sec.co.kr

주요 자산군 등락폭 제한적, 중동 상황 주시

- 미 증시는 DOW +0.36%, S&P500 +0.44%, NASDAQ +0.54% 상승. 소비재, 에너지 등 우량성장주 및 경기순환주 중심 강세
- 공격유예시한을 하루 남긴 시점, 중동 상황을 주시하며 큰 폭의 움직임은 제한. 다만, S&P 기업 2 분기 실적 기대가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
- 달러·금·미 국채금리 등 보합권 등락. 유가 또한 WTI $112.7(+0.1%), Brent $109.7(+0.6%) 소폭 상승

유예시한 하루 남기고도 여전히 불확실한 중동 상황

- 미-이란 양측은 중재국 주도 하에 45 일간 휴전 및 종전합의 2 단계 중재안 수령. 이란은 일시적 휴전안은 거부하며 영구적 종전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, 10 개 종전안을 중재국에 전달
- 백악관은 중재안 검토중 입장. 이란과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며 공격 유예 시한을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 밝힌 한편, 미군이 이란 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준비에 착수했다는 WSJ 보도는 여전한 불확실성 자극
- 다만,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측에 적극적으로 협상을 원하는 자가 있다고 언급하며 공포심리 완화

인플레, 사모신용대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월가 의견 분분

- 해싯 NEC 위원장은 이란전쟁발 인플레이션은 단기 수급차질에 따른 일시적 혼란이라 발언. 호르무즈 해협 개방시 빠르게 정상화 될 문제로 해석
- 반면, 다이먼 JP 모건 CEO 는 주주연례서한에서 전쟁발 인플레 압력이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. 그 외에도 경쟁 심화, 미 정부의 신뢰 상실, AI, 유럽 동맹 약화 등을 올해의 위험으로 언급. 사모대출 부실 심각성 경계 또한 언급. 다만 시스템 위기로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전망
- 워렌 버핏은 불확실성 시기에 사모신용대출 신뢰도 충격은 금융권 전반으로 스트레스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
- 3 월 ISM 서비스업 PMI 54.0 전월·컨센 하회, 21 개월 연속 확장세. 가격 70.7(+7.7p) 상승, 고용 45.2(-6.6p) 위축국면 전환

특징주: 메모리주 낙관론 기반 강세, 의료보험주 시간외 상승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STX	씨게이트	+5.6%	모건스탠리는 씨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(+3.1%)에 '비중확대' 의견 유지, 씨게이트를 업종 내 최선호주로 새롭게 선정하며 주가 강세. 고용량 제품 출하 확대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개선 속도가 경쟁사 대비 빠를 것이라는 분석. 키뱅크는 CPU와 메모리 칩의 강한 수요를 언급하며 마이크론(+3.2%)에 비중확대 의견 유지, 메모리주 전반 반등
UNH	유나이티드헬스	+1.5%	시간외 +8%대 상승. 미 정부(CMS)가 '27년 민간 보험사에 지급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(MA) 지급 요율을 2.48% 인상하기로 확정. 지난 1월 제시된 초안보다 크게 개선, '27년 민간 보험사들에 약 $13B 이상의 추가 지급액 유입될 전망. CVS헬스(시간외 +7%대 상승) 등 의료보험주 동반 강세
TSLA	테슬라	-2.2%	1Q 인도량 실망 여파 지속되는 가운데, JP모건의 투자의견 '비중축소'와 목표주가 $145 유지
APP	앱러빈	+6.8%	웰스파고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주가 강세. 웰스파고는 투자의견 '비중확대' 유지, 목표주가 $543→$560로 상향 조정. 인앱 광고 시장의 견조한 수요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주요 근거
NFLX	넷플릭스	+0.3%	골드만삭스는 투자의견을 '중립'→'매수'로 상향, 목표주가 $100→$120로 상향 조정
DOW	다우	-2.0%	BofA는 이란 분쟁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화학주들의 최근 급등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, 다우와 라이온델바젤(-1.2%)의 투자의견을 '언더퍼폼'으로 하향 조정